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7년의밤 (2011년 출간)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시각장애인 헬스케어 관리자 추천 작가 2인중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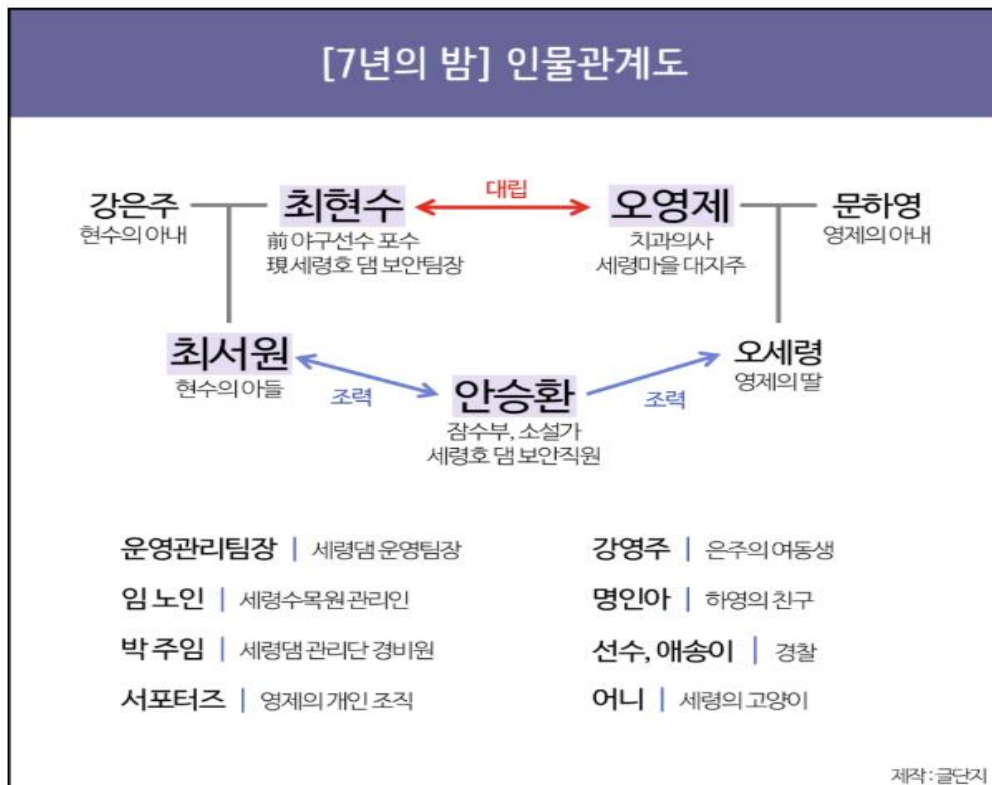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미친필력과 서사로 소문난 정유정작가의 악의 3부작 그 첫번째 소설입니다. 소문대로 강렬한 서사와 섬세한 심리묘사로 베스트셀러와 동시에 2018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그 영화는 폭망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

(시간) 2004년 vs 2011년

(공간) 등대마을 vs 세령마을

(인물) 현수 vs 영제



우발적인 사고로 소녀를 죽이고 시체를 호수에 유기한 남자와 그로인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야했던 아들의 이야기를 쫓깃한 문체로 심리묘사가 환장 ?

<작가의말>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감미로운 산들바람을 보내고 때론 따듯한 태양빛을 선사하며, 때로는 삶의 계곡에 불행이라는 질풍을 불어넣고 일상을 뒤흔든다. 우리는 최선_적어도 그렇다고 판단한 선택으로 질풍을 피하거나 맞서려한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최선을 두고 최악의 패를 잡는 이해못할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사실과 진실 사이에 바로 이 "그러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되지 않은 혹은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세계, 불편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한사코 들여다보아야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왜 그래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두 "그러나"를 피해 갈 수 없는 존재기때문이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소문난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즐거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또 하나의 행복이다. 아 다른장르도 읽어야 하는데...또 3부작이다. 근데 벌써 기대가 되는건 무엇 ?